

50-70대 액티브 시니어 34명 '새로운 도전'

전남과학대 시니어공연예술모델과

광주·전남 최초...실무 중심 프로그램

교사·자영업자·예술활동가 등 다양

김인 학과장 "새로운 직업 영역 창출"



전남과학대 시니어공연예술모델과 신입생과 강사진이 최근 교내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과학대학교 제공>

콘텐츠, 공연연출 등 각 분야의 전문 강사진이 포진했다.

교과 과목은 모델실무, 이미지워킹, 미디어연기,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패션&뷰티 스타일링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첫 신입생 30명 모집에 정원 외를 포함해 37명이 입학했으며, 5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지원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교사, 공무원, 자영업자, 문화예술 활동 경험

자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시니어들이 '자기표현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로 모였다.

김인 학과장은 "시니어들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문화 생산자이자 콘텐츠 창작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니어들이 지역사회와 문화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시니어 문화와 새로운 직업 영역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입생 전주진(60대)씨는 "어릴 적 꿈이 모델이었으나 잊고 살다가 아내의 권유로 도전하게 됐다"며 "비록 늦은 나이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과학대는 1991년 곡성군 옥과면에 개교한 대학으로 4년제 간호학과를 비롯해 총 29개 전문학사과정 학과와 전문기술 석사과정 2개 학과,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위탁과정 등 2천 5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박선욱 기자



보성경찰, 보행보조 의자차 '안전 조명' 부착

보성경찰서는 11일 "동암마을회관과 복내파출소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 LED 안전 조명 등 부착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어르신 의자차 4대에 LED 안전 조명등을 부착했다.

LED 안전 조명등은 야간이나 우천,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춘다.

이밖에 보성경찰은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야광 지팡이, 야광조끼 등 교통 안전 물품과 홍보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신완수 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앞으로 의자차 뿐만 아니라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까지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고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GIST AI융합학과 박사 4명 교수 임용 '경사'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AI융합학과 졸업생 4명이 잇달아 주요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11일 GIST에 따르면 임용된 졸업생은 박진휘·배인환·김원·박영재 박사, 각각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조선대학교 AI소프트웨어학부,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에서 조교수로 임용돼 연구와 교육 활동을 시작한다.

박진휘 교수는 GIST AI융합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2025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재학 중 컴퓨터 비전과 로봇공학 분야를 중



왼쪽부터 GIST 박진휘·배인환·김원·박영재 박사 졸업생. <GIST 제공>

심으로 영상 처리와 3차원 정보 복원을 포함한 컴퓨터 비전 기술 연구를 수행했다.

배인환 교수는 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AI융합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컴퓨터 비전과 머신러닝 분야를 중심으로 인간 행동의

이해와 예측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컴퓨터 비전 분야 국제학술지 'IEEE TPAMI'와 대표적 국제학술대회 'CVPR' 등에 총 14편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했다.

을 게재하거나 발표했다.

지난 1일 조선대 AI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공학전공) 조교수로 임용된 김원 교수는 2020년 2월 GIST 융합기술학제학부에서 공학석사를 취득한 뒤 AI융합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

박영재 교수는 GIST AI융합학과 석·박사통합과정을 통해 2025년 2월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광운대학교 정보융합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컴퓨터 비전과 공익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Social Good)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대표적 국제학술대회인 CVPR, NeurIPS, AAAI, ICLR과 국제학술지 'IEEE TPAMI' 등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송원미래인재고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활성화' 협약

광주대학교는 "최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송원미래인재고등학교가 지역 청년 진로·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취업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고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로 설계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고교 맞춤형 진로·취업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지역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진로·취업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신준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지역 청년들이 고교 단계부터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지역 청년·취업 지원 거버넌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진로·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광주시, 초교 11곳서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광주시는 11일 화정남·유촌초등학교 등 지역 초등학교 11곳 주변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안전정책관·교통운영과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해 '일단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를 주제로 어

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실천을 집중 홍보하고 교통안전 행동요령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하경완 안전정책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이 외에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조선대 의대-日 성마리아나 의대 '교육 협력' 협약

조선대학교는 11일 "의과대학과 일본 성마리아나 의과대학이 의학·임상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대 교육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글로벌 의학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임상교육과 연구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의학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생 및 교수 교류 프로그램 확대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추진 ▲임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선대 방문단은 일본 현지 병원과 의과대학

교육시설을 찾아 임상실습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참관하고, 의료 교육 인프라와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구체화했다.

안영준 의과대학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의학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생과 교수의 국제 교류 기회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교육·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의학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담양청소년지도위원協 '학교폭력 예방' 법 교육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는 지난 9일 담양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사이버 폭력 등 실제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뤄졌다.

특히 시청각 자료와 퀴즈 등을 활용해 학생들

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경각심을 크게 높였다.

서병현 협의회장은 "누구도 학교 폭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사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법 교육을 통해 밝고 건강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영광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영광경찰서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최근 영광초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캠페인에는 영광경찰과 영광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관계자 50명이 참여해 무단횡단 금지 등을 안내하고 학교주변 교통

시설물 점검, 학교폭력 근절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종신 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실천문화가 중요하다"며 "안전 활동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호남대, 퇴직교원 4명에 정부포상 전수·공로패 수여

호남대학교는 지난 10일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와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난달 말 정년퇴직한 백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박혜숙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 조규정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이정식 드림라이프학부 교수 등 4명의 퇴직 교원에게 정부 훈포장을 전수하고 공로패 등을 수여했다.

박상철 총장은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맞은 4명의 교수들에게 공로패와 재직기념패, 전별금을 전달하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박선욱 기자